

# “재난 없는 ‘안전 동구’ 만들기 앞장서겠다”

●정형조 제5대 동구자율방재단장 취임

전문성 강화·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목표  
“단원들간 ‘화합’ 통해 지역 발전에 힘 보탬 터”



“재난 없는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형조(60·사진) 제5대 광주 동구자율방재단장이 지난 9일 동구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취임식에는 임택 동구청장,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과 노진성 부의장, 홍기월·박미정 광주시의원, 동구자율방재단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단장은 취임식에서 “부족한 재가 빛고을 1번지인 광주 동구지역 자율방재단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동구 방재단을 훌륭하게 이끌어 준 전임

단장님과 단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씀을 열었다.

이어 정 단장은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어떠한 자연 재난도 극복할 수 있다”며 “재난 없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단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단원들간 화합에 중점을 두고 실속 있는 자율방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불어 방재단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와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구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사 이후에는 전 단장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 전달과 함께 축사가 이어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는 학동 참사라는 큰 아픔을 겪었다.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자율방재단의 힘이 컸다”며 “앞으로도 동구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형조 제5대 광주 동구자율방재단 취임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때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여겨진다. 신임 단장님, 단원들과 함께 동구 의회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1996년부터 광주 동구 곳곳에서 30여년 넘게 주재장을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총장동 주민자치회 기획분과장으로 활동, 총장축제 등 관내 큰 행사들의 기획·운영을 도맡아 왔다.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은 정 단장은 광주시로부터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앞서 지난 4년간 광주 동구자율방재단을 이끈 강금수 단장의 이임식도 진행됐다. 강금수 전(前) 광주 동구자율방재단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함께 땀 흘리며 고생해준 단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신임 단장에게도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정 기자



조용자 BYC 동양상사 대표  
목포 연동에 백미 200kg 기탁

목포시 연동행정복지센터는 10일 “조용자 BYC 동양상사 대표가 지난 8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2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백미는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20세대에 전달됐다.

조용자 BYC 동양상사 대표는 “장마철과 무더위를 밥심으로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쌀을 준비했다”며 “작은 나눔을 통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미선 연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을 나눠준 조용자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연동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도, 정신건강 대국민 공개강좌 호평

전남도는 10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도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울하다는 우리 아이, 어떻게 도울까요?’라는 주제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대국민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공개강좌에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협력으로 박순영 밝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을 초빙, 아동·청소년 우울장애의 증상 및 특징, 진단 기준 등을 살피고 위험요인과 치료방법 등 가정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학부모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강좌는 아이들이 어떻게 우울감을 표현하는지 성인과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해·자살 생각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모든 도민이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차별없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선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담양군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산림조합 직원·관계자 등 50여명이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담양군산림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담양군에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앞서 지난 5월엔 전북 정읍시산림조합과 상호기부를 진행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진현 담양군산림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지역과 기관 간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담양군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인사

법무부 ◇서기관 전보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조항덕 ▲보안과장 박승률 ▲사회복지과장 이병훈 ▲분류센터장 김종근 ▲목포교도소장 김남진 ▲해남교도소장 윤대하 ▲광주교도소 부소장 황인균

## 김하늘 해군 3함대 중위, 2년 기른 모발 기부

‘어머니 운동본부’에 35cm 전달... ‘소아암 환우들 하루빨리 건강 되찾길’

“소아암 환우들의 쾌유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이하 3함대) 소속 경남 함 유도부기관으로 근무 중인 김하늘(25·여·사진) 중위가 최근 소아암 환우를 위해 ‘어머니 운동본부’에 2년간 기른 모발 35cm를 기부해 주목 받고 있다.

2022년 해군 소위로 임관한 김 중위는 해군사관후보생 교육 과정에 입교하기 위해 긴 머리를 자르며 모발 기부에 대한 생각을 처음 떠올렸다.

또한 김 중위는 주위 여군 선배들이 환우들을 위해 모발을 기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

도 기회가 된다면 모발 기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모발을 기부하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어렵게 기른 머리카락을 단번에 자르는 것에 대한 아쉬움, 출혈이 잦은 탈색 근무 중에도 머리카락을 관리해야 하는 점 등이 김 중위를 계속 고민에 빠지게 했다.

그럼에도 ‘내가 기부한 모발이 소아암 환우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말을 되뇌이며, 염색을 하지 않고 2년간 모발을 관리했다.

‘어머니 운동본부’는 25cm가 넘는 머리카락을 기부받아 항암치료로 심한 탈모를 겪고 있는 소

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 가발을 제작·기부하는 단체다. ‘어머니 운동’은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의 줄임말이다.

김 중위는 대학생 시절부터 자원봉사활동 등 여러 회장을 맡으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2018-2022년 용인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뜨개질로 모자를 만들어 난민 지원 기구를 통해 신생아에게 모자를 기부했으며, 시각장애인 오디오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목소리 나눔에도 지원하며 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혀갔다.

이 밖에도 헌혈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적십자협회에도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



난해 적십자협회로부터 우수 후원자 감사패를 받았다.

잘린 머리카락을 한 손에 쥐 김 중위는 “소아암 환우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삶을 되찾아 설렘이 가득한 내일을 기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매일신문, 도담지역아동센터 ‘NIE 2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9일 광주 남구 도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실기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 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공부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호준(백운초 5)·박민규(백운초 4)·오재윤(백운초 1) 학생은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과 기사를 직접 편집디자인 해냈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 기자



새마을문고 광주북구지부 ‘공유서가-책 나눔터’ 행사

새마을문고 광주북구지부는 지난 9일 ‘공유서가-책 나눔터’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북구지부는 책나눔 행사를 통해 사립당 지역아동센터 등 북구 관내 아동센터 8개소에 총 158권의 아동도서를 전달했다. /안재영 기자

오미숙 광주북구지부 회장은 “아이들의 독서문화 함양과 조금이라도 책을 가까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사를 마련했다”며 “마음의 양식을 쌓는 습관이 길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GS칼텍스, 무료급식 100만식 달성 기념식

GS칼텍스는 10일 “전남 여수시 소재 ‘GS칼텍스 사랑나눔터’에서 무료급식 100만식 달성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김성민 GS칼텍스 최고안전책임자(CS EO)를 비롯해 여수시 교육복지국장, 지역사회복지기관 관계자, GS칼텍스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 사랑나눔터’는 여수시, 지역사회복지기관, GS칼텍스가 독거노인이 다수 거주하면서 급식소가 부재한 광림동, 연동동, 충무동을 기반으로 연동동에 2008년 5월 개소한 무료급식소다.

올해 6월까지 16년간 누적 운영 실적으로 참여 봉사자 2만2천명, 사업비 49억8천만원, 급식 100만식(현장배식 95만, 반찬나눔 5만)을 달성했다. 정기명 시장은 “GS칼텍스에 시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누면서 아름다운 여수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김성민 CSEO·각자대표는 “16년간 무료급식으로 누적 100만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수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성원과 협력 때문”이라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답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 광주매일신문 견학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은 10일 오후 2시30분 서구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사 견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사 편집국, 광주매일TV 미디어룸 등을 둘러보고, 각 부서별 기자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1-3차 순회 교육을 통해 기사 쓰기 실제 사례와 신문 편집 디자인 원리 등 신문 만들기 기초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취재기자의 현장 기사와 사진이 편집 과정을 거쳐 인쇄소에서 제작되는 전 과정을 보면서 신문의 소중한 가치를 배웠다. /박희중 기자



학생들은 광주매일신문만의 특화된 융·복합 시스템도 체험했다. 직접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신문을 보며 AI의 신문 읽기도 들어보고, 본보 미디어팀과 영상 제작을 함께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희중 기자